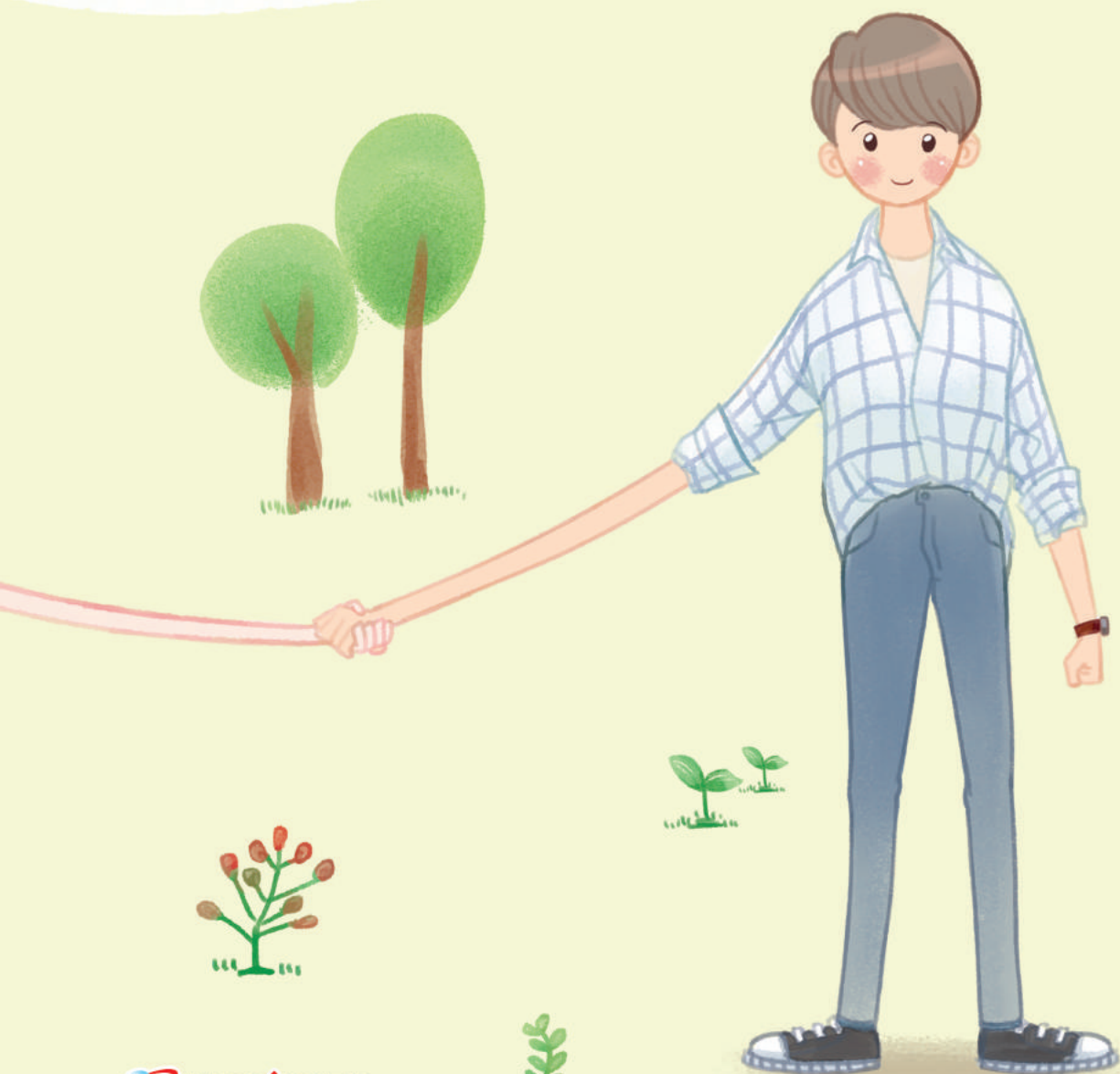


별을 쏘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8. SPRING vol. 016



별을쏘다 ★

2018 SPRING vol.016

발행일 | 2018년 5월 15일 (통권 제16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안상수, 이성은,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wh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썬 (Tel. 051-623-1906)



내 곁에서 손잡아주는
든든한 당신!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INSIDE SUNGWOO

04 Issue & News

08 Challenge SUNGWOO 성우인들의 조금 특별한 봄맞이

12 Education 노사화합워크숍,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 관리 과정 긍정의 힘으로 한 뼘 더 성장할 '나'를, '성우'를 그리다

18 SUNGWOO People '칭찬'은 금형설계팀을 춤추게 한다

22 Ready Action 빠르고 정교한 '스몰볼'의 매력에 빠지다

SPECIAL THEME : 손

26 Photo Essay 안중근 의사 유묵 爲國獻身軍人本分(위국헌신군인본분)

28 Art Story 구원이 된 미술 작품 뒤러 '기도하는 손'

30 Special World Cup 축구 경기의 판도를 바꾸는 거미 손, 골키퍼



32 Coulmn SNS, 세상을 변화시킨 '손가락 혁명'

36 Communication 소통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한 수, 제스처

FUN SUNGWO

38 Together 더 나은 사회구조 확립과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40 New SUNGWO 도전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44 Going 여름만 기다릴까보냐? 가자! 축제 속으로~ - 6~8월 편

50 Manner Makes Man 독일의 비즈니스 매너

52 Tasty Road 밥상 위의 향긋한 봄 향기~ 봄나물 밥상

54 Talk to You 밀줄 짹!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말

56 We are SUNGWO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우인의 손

57 Event Editor's Pick! <별을 쏘다> 추천 알짜배기 맛집,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제3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주)성우하이텍 제37기 정기주주총회가 3월 29일 오전 10시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 및 업무보고에 이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승인하였다.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중국 중경생산공장에서의 성공적인 제품양산이 시작되었고, 국내를 비롯해 중국, 인도, 유럽, 북중미의 주요거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4억불 수출의 탑을 달성한 데 이어 2017년에는 부산 유일의 5억

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였다”며 지난해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어 “지난해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부진 등으로 매출실적이 감소하는 등 악화된 대내외 경영환경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고, 올해 역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래기술혁신의 가속화로 경영환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이어가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갈 것이며, 최고의 글로벌 부품사로 거듭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제16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대회 개최



눈부신 봄 햇살이 가득한 3월 18일 일요일 아침, 제 16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대회가 해운대 BEXCO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팔 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석한 가운데, 10km 경쟁부문, 10km 비경쟁부문, 건강달리기 3개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BEXCO와 수영구 일대를 누비며 이른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다.

성우하이텍, 아산성우하이텍 가족 천여 명도 이번 대회에 참석하였고, 특히 작년 10월 1일부로 합병한 핫스탬핑 임직원 및 가족들도 참여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대회 종료 후 BEXCO 지하 1층과 2층에서 열린 가족 뷔페 행사를 통해 동료애를 다지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 **관련 기사: 8p**

(주)성우하이텍 지사공장, 2017년 GMK 공생협력프로그램 우수사업장 선정



(주)성우하이텍 지사공장은 3월 9일, 한국GM(주) 창원공장이 주관한 2017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설명회에서 '2017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한국GM 창원공장 연수관에서 상패를 수상하였다.

공생협력프로그램은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GM(주) 창원공장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시행 중이며, 2017년에는 27개 사내외 협력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성우하이텍 지사공장이 최고점을 받아 이번 수상이 가능했다.

(주)성우하이텍 지사공장은 2017년에 이어 2018년까지 2년 연속 우수사업장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노사화합워크숍 개최



2018년 노사화합워크숍이 2월 26일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위기극복을 위한 변화관리 과정>이라는 핵심목표로 '변화에 대응하는 직장인의 자세', 'Process Innovation을 위한 실천 전략', '다른 우리, 같은 울림',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라는 제목으로 4강좌를 구성하였다.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Global 혁신 회사로 도약을 위해 도전, 소통, 긍정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깨달아 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핫스탬핑 직원들도 처음으로 참여하여 성우인으로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 관련 기사: 12p

2018년 계층별 교육 실시



2018년 계층별 교육이 4월 19일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R&D센터 내 글로벌 품질확보동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Beyond Tomorrow>(사원~대리), <Action Learning>(과장~팀장) 두 가지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사원과 대리들은 성과를 창출해내는 실행력 강한 구성원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과장 이상은 변화·혁신에 적합한 조직관리 방안에 대하여 탐구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성우하이텍은 성우인들이 '창의성·전문성·자기계발'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주제의 계층별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매 차수 1박 2일간 진행될 올해 교육을 통해, 성우인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바탕으로 실행력이 뛰어난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관련 기사: 15p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4월 19일/26일 양일간 서창공장 대강당(정관, 장안, 지사, 수원, 핫스탬핑, 아산은 화상연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혜임 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방법 및 예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성희롱 예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기업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시간이 되었다. » 관련 기사: 38p

성우공동모금, '소주동 착한이웃 나눔냉장고(Food Sharing)' 사업



성우공동모금에서는 2017년 8월부터 '소주동 착한이웃 나눔냉장고(Food Sharing)'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주동 착한이웃 나눔냉장고' 사업은 성우공동모금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30인분의 밑반찬을 양산시 소주동주민센터 내 냉장고에 지원하고 있다. 착한이웃 나눔냉장고를 통해 지역의 홀몸 어르신, 부자(父子)가정, 장애인 가정 등 먹거리 해결이 어려운 돌봄 이웃의 먹거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성우하이텍 직원식당에서 밑반찬을 조리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성우공동모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성우공동모금은 ㈜성우하이텍에서 지난 2010년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모금 통장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000여 명의 임직원이 동참하고 있다.



성우인들의 조금 특별한

봄
맛이
있다

제16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

3월 18일 성우하이텍이 후원하는

'제16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이 개최되었다.

부산의 명소인 광안리 해변, 해운대 일대를

가족과 함께 달리는 유쾌한 봄맞이 현장.

올해도 성우인들을 비롯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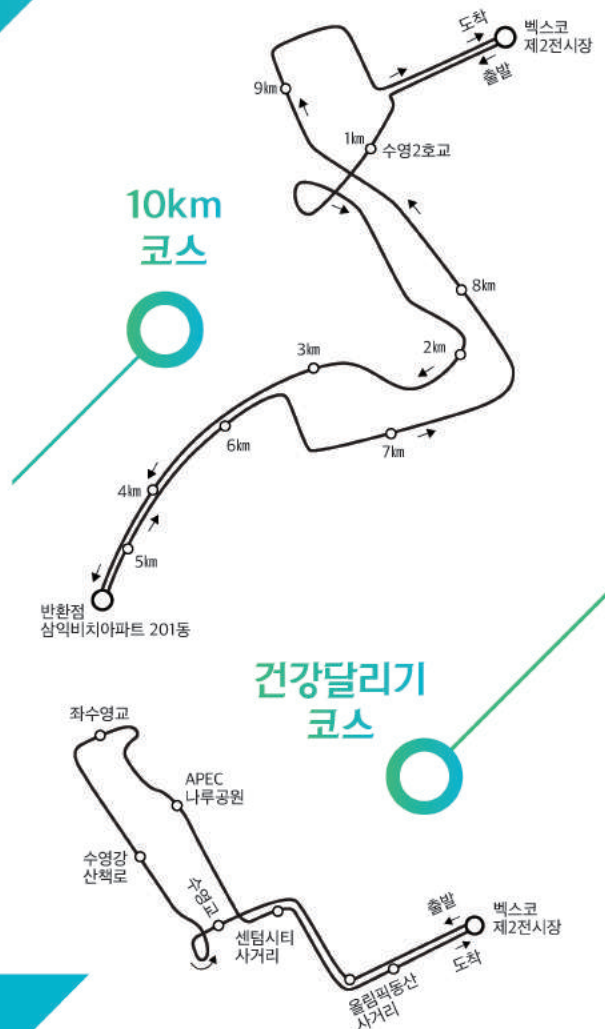
8,000여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이 특별한 경험을 만끽했다.

성우인의 봄 마라톤과 함께 시작한다

옷차림만큼이나 마음도 가벼워지는 봄. 이맘때 성우인들은 KNN 환경마라톤대회 참가 공지를 통해 봄이 왔다는 것을 실감한다. KNN 환경마라톤대회는 연령 제한이 없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달릴 수 있어, 성우인들도 매년 자녀와 함께 부산의 명소를 달리는 의미 있는 경험을 즐긴다. 올해도 많은 성우인이 가족들과 함께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대회는 10km(경쟁부분/비경쟁부분), 건강달리기 코스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0km 경쟁부분은 1시간, 비경쟁부분과 건강달리기는 1시간 30분의 제한시간 안에 피시나라인을 통과해야 한다.

7시 30분 벅스코에 집결한 성우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의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회를 준비했다. 이날 대회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치러졌지만 대회를 앞둔 성우인들의 표정만은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전문가의 시범에 따라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성우인들. 벅스코 제2전시장 앞에서는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대회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 맛있는 식사도 함께하고

가족, 동료와 함께 이른 봄을 만끽한 성우인들의 발걸음은 벅스코 더 파티에 마련된 식자 자리로 향했다. 성우하이텍에서는 매년 환경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성우인들과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적당히 허기가 몰려 올 때쯤, 땀을 흘리고 난 뒤 먹는 한 끼 식사는 평소보다 더 꿀맛이다. 동료, 가족과 함께해서 더 의미가 깊은 것은 물론이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대회에 참가한 직원들의 다양한 얼굴을 담은 동영상도 재생된다. 아이와 함께 웃음을 터트리는 직원, 업무 현장에서 벗어나 다소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팀워크를 다지는 동료들, 뚝 났을 얼굴로 대회 참가 의지를 다지 듯 파이팅을 외치는 가족들. 환경마라톤에 참가한 성우인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







노사화합워크숍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 관리 과정

엄희준 조장(검사반)과 윤준영 사원(보전반)의 첫 워크숍 참가기

핫스탬핑이 성우하이텍의 새 식구가 된 이후 첫 외부 교육이 있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노사화합워크숍에 참가하였다.
그동안 주어진 일만 끝내고 퇴근하면 그만인 직장생활이었는데,
업무를 떠나 이틀이나 교육을 받는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 관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틀 동안 무엇을 하게 될까.



DAY 1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죄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 어색해
~. 어색함을 떨쳐내기도 전
에 조를 짜고 첫 순서가 시
작됐다. 조원들끼리 머리를

맞대어 'Process Innovation' 실천 방안을 찾는 것.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겠다 싶었는데 다양하
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며 내심 놀랐다. 그제
시키는 업무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다는 점이 신기했다. 이런 시간이 아
니면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잘 없
겠지? 나도 슬며시 평소 생각해왔던 이야기를 꺼
내었다. 오~ 의외로 반응이 좋다.

점심식사 후, '그룹저글링'이 진행됐다. 저글링사
물 20개를 빠른 시간 내에 패턴대로 전달하는 조
별 경쟁 게임이었다. 오전 교육으로 그나마 친해

졌는데도 여전히 쑥쑥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가장 먼저 완성하는 조가 우승한다는 말에
다들 눈빛이 변했다. 시간 단축 방안을 내고, 하던
방식을 벗어나 다른 방법을 찾았다. 무릎을 맞대
고, 성공한 사물은 옆에 던지고, 중간에 손바닥도
퍼고... 게임 하나에 이렇게 여러 아이디어를 도
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내가 의견을
낼 때마다 조원들이 귀담아 들어주고, 격려해주
니 절로 어깨가 으쓱해진다.

오후 강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리였다. 뉴
스에서만 간간히 들어오던 쌍용, GM, 도요타의
사례들을 명쾌하게 설명하여 주시니, 세상 보는
눈이 한결 넓어진 느낌이다. 강사님은 나보다 연
배도 한참 위이신데, 아직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세상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대단하다는 말
밖에...



DAY 2

편안한 잠자리에 단잠을 잤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구류, 깨끗한 샤워시설, 맛갈스러운 아침 식사를 하며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다. 기

분 좋게 맞이한 첫 시간, 맑고 고운 목소리의 강사님이 '다른 우리, 같은 울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나쁜 감정을 3분간 지니면, 2시간 동안 Cortisol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가족과 동료들에게 화내는 아침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나도, 상대방도 몇 시간, 심하면 하루 종일 괴로워질 수 있으니...

마지막 강의를 진행한 강사님은 기억에 오래 남을 듯하다. 시골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혈혈단

신으로 상경하여 공장에서 일하던 유년시절 이야기가 짝하다. 최악의 선임을 만나 매를 맞고, 돈도 빼앗기며 암울하게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다짜고짜 시내로 데려가서 책을 사주며 공부하라고 독려해주는 조장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는 대목에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타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한 걸음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살고 있나? 새삼 나를 되돌아보았다.

이틀간의 워크숍을 마치며, 진짜로 성우하이텍의 일원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들었다. 더하여 단순히 일만 하는 직장이 아닌 미래를 함께 헤쳐 나가고, 함께 고민해야 할 상대로 회사가 나를 존중해 주며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매년 진행되는 워크숍, 성우인들에겐 어떤 의미인지?
 회사생활에 활력이 되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잡도록 이끌어주던,
 처음 참가했을 때의 그 설렘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시길.



워크숍 참가 후 핫스탬핑의 점심시간

윤 사원: 요즘 사는 게 끝맛입니다. 워크숍을 다녀온 후 배웠던 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여자친구와 데이트 할 때 소통 능력 향상에서 배운 대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는 공감대화를 접목하고 있는데, 정말 서로의 마음이 잘 전해지더라고요. 덕분에 사이도 더 좋아져서 사는 게 끝맛입니다. 하하!

엄 조장: 나는 처음 참가해봐서 사실 긴장했었어. 그런데 교육 내용도 너무 유익하고 실무와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집에서 배운 대로 공감대화를 했더니 와이프랑 사이도 좋아졌어. 동료들과 소통도 훨씬 원활해진 것 같고 말이야.

윤 사원: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제가 일을 어렵게 처리했을 때 먼저 제 의견을 들어주시고 관심 있게 물어보신 다음 공감해주셨잖아요. 같은 실수 없이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엄 조장: 하하, 그게 워크숍에서 배운 경청, 관심, 공감의 '다가가는 대화' 아니겠어!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나면 상대도 내 말을 경청해주더라 말이지.

윤 사원: 워크숍이 제 생각과 태도를 바꿔준 것 같아요. 협력의 중요성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 배울 때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변화와 흐름에 대응하려면, 워크숍에서 끝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기계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엄 조장: 아무래도 워크숍 덕분에 마음가짐도 변한 것 같지? 다른 직원들도 빨리 워크숍에 다녀오면 좋겠네. 다른 사업장 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

• 2018 성우하이텍 노사화합워크숍

구분	내용
주제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 관리
대상	성우하이텍, 아산성우하이텍 현장간부 및 공정책임자
교육시간	총 16시간(차수당 1박 2일)
실시인원	340여 명(10차수)
장소	부산은행 연수원

긍정의 힘으로 한 뼘 더 성장할 ‘나’를, ‘성우’를 그리다

Beyond Tomorrow 과정

4월 19일, R&D센터 글로벌 품질확보동이 아침부터 시끌시끌하다.
15차수에 걸쳐 진행될 2018년 계층별 교육 1차수가 지금 막 시작되었다.

변화의 출발은 나

‘위기’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듣게 되는 요즘.
성우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잡히지 않고,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자신감은 바닥 치는...
그런 패턴의 반복 속에서 의욕까지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건강한 조직은 의욕적인 구성원들로 인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계층별 교육 사원 ~ 대리 직급 과정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DAY 1

첫날 일정은 평소 무심했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Beyond I), 성우의 역사와 현재를 돌아보는 활동(Beyond We)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Beyond Tomorrow) 과정이었다. 정현우 강사는 ‘텐션업 프로젝트 뽀함에서 Fun함으로’라는 주제로 직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성우하이텍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함께 되돌아볼 수 있었던 ‘Yes 타임캡슐’ 활동은 특히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강의 실을 옮겨 각 연도별로 표시된 카드 앞에 선 직원들은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을 적을 수 있는 포스트잇을 얻기 위해 꼬끼리 코 돌기와 팔굽혀펴기, 가족에게 사랑하는 말 메시지 받기 등 카드 뒷면에 적힌 미션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갔다. 이렇게 개인 및 팀별 미션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교육에 녹아들었고, 그 과정에서 진지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DAY 2

이틀 차 교육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든 '펜싱'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기본자세를 취하는 방법, 에페(epee, 펜싱 경기나 연습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펜싱검) 쥐는 법, 공격법 등을 배운 뒤에는

팀을 나눠 연습 경기를 가졌다. 새로운 활동을 앞둔 성우인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모처럼 승부욕이 발동한 성우인들의 열의로 교육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틀 차 교육에서는 이 외에도 실행력이 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드는 스킬을 익혔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온다. '난 왜 항상 이 모양이지?'라는 자책보다 '난 정말 잘 해낼 능력이 있어.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주문을 외어보자. 성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이 성우하이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불어넣어 줄 것이다.

Interview

신차품질2팀
김규식 사원



올해 교육은 사내에서 하는 만큼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은 직급의 동료들과 함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 갑니다.

인사노무팀(하스탬핑)
권성희 대리



평소 교류가 뜸하던 타사업장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회사방침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네요. 처음 교육 참여라 설렜어요. 잠시 업무를 떠나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간 계층별 교육 후 휴식하는 나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다

인사노무팀 김예지 대리

“휴일은 있지만 휴식하는 나는 없다!”

지난 이틀간 계층별 교육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교육은 저에게 ‘휴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원, 대리 주니어 직급이 한 공간에 모여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소통하고 화합으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휴식하는 나’를 보았습니다.

처음 ‘접어’ 게임으로 팀원들이 대동단결하여 저를 조장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교육은 시작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설레어 하는 핫스탬핑 직원들을 보면서 7년 전 입사 당시를 되돌아보았고, 그 안에서 돌아보고 싶은 내 모습, 간직하고 싶은 내 모습, 내가 꿈꾸는 내 모습은 무엇인지를 연계하여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원은 특히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비록 조 이름을 정할 때 책상 위에 놓은 빈 커피 통에서 얻은 아이디어였지만 게임도, 발표도, 모두 조 이름에 걸맞게 T.O.P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과뿐만 아니라 웃음도 끊이지 않았습다.

이틀 차에 진행된 ‘펜싱’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펜싱은 귀족 스포츠이고, 돈도 많이 들어 평소 접하기 힘든 운동인데, 강사님께서 친절히 설명해주실 뿐만 아니라 쉽고 가볍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거부감 없이 수업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균형감각과 순발력을 겸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승부욕 또한 참으로 강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물론 배꼽 빠지게 한 몸 개그의 향연도 펼쳐졌지요.

저는 저희 조에서 가끔 허당끼를 발산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웃고, 즐기며, 결과를 도출하는 동료들 보면서 평소에는 몰랐지만 이런 동료라면 일을 위한 일이 아닌 일다운 일을 하면서 개인도 회사도 모두 프라이드를 높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스스로 변화를 감행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런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회사의 향후 3년, 5년, 10년 후 우리가 개인과 회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했던 직원이나 앞으로 참석할 직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나 김예지는 매력적이고, 매력적이며,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교육을 다녀오신 분은 무슨 뜻인지 아실 테고, 앞으로 가실 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칭찬'은 금형설계팀을 춤추게 한다



일주일에 한 번, 금형설계팀에서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회의실에 둘러앉은 직원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집중된다.
이번 주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이다.
일주일간 팀 동료들이 적어준 롤링페이퍼 앞에 선 주인공.
쑥스러운 표정에서 어느새 기분 좋은 미소로 변한다.
팀 분위기를 바꿨다는 칭찬 릴레이. 그 색다른 풍경을 살짝 들여다보자.

동료의 성향을 파악하여 대화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줄고, 소통이 원활해지니
업무 효율도 한층 더 높아졌다.



칭찬하기, 팀 분위기를 바꾸다

<칭찬 릴레이>는 지난해 9월 회사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인 '팀워크숍'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워크숍 과정 중 팀 내 개선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칭찬에 인식하다'는 의견에 모두들 동의했다.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롤링페이퍼를 이용한 칭찬 릴레이다. 팀원 중 주인공 한 사람을 정해 일주일간 칭찬 롤링페이퍼를 돌리고 금요일 세미나 때 주인공에게 공개한다. 주인공은 롤링페이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칭찬 세 가지를 골라 발표하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롤링페이퍼는 일주일간 팀 내 게시판에 게시된다.

처음엔 모두들 어색해 했다. 적는 동료들은 쑥스러움에, 발표하는 주인공은 낮부끄러움에 손발이 오그라들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첫 주인공이었던 조승덕 사원은 그날을 이렇게 회고한다.

“그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 내가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던 모습들을 칭찬해주는 동료들의 칭찬에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저도 롤링페이퍼를 적으면서 생각해보기 되더라고요. 이번 주 주인공의 장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칭찬 릴레이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각자가 지닌 개성, 장점에 대하여 동료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개성과 장점을 정작 주인공은 몰랐는데, 동료들이 알아주어 절로 동료애가 돈독해진다. 이러니 팀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밝아지지 않을 수가 있으랴. 동료의 성향을 파악하여 대화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줄고, 소통이 원활해지니 업무 효율도 한층 더 높아졌다.

“서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죠. 동료를 알아가게 되니까요. 지금은 모두들 칭찬 릴레이를 즐기고 있어요. 재치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익명의 주인공을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칭찬 릴레이를 「별을 쏘다~★」에 제보한 김성재 과장은 이 특별한 활동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하며 엄지 척을 외쳤다.



누구나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 의견을 보탠다.
후배 사원은 선배 사원의 경험에서
노하우를 습득하고,
선배 사원은 후배 사원의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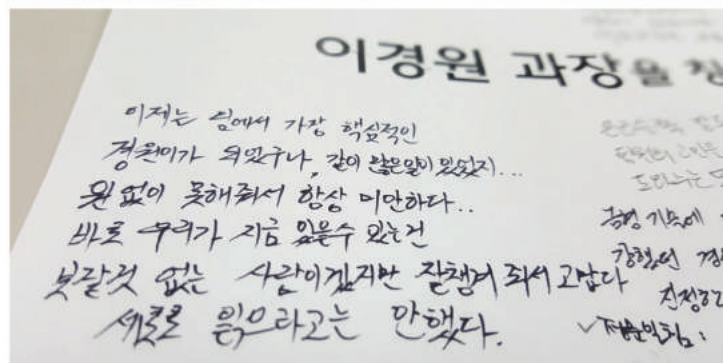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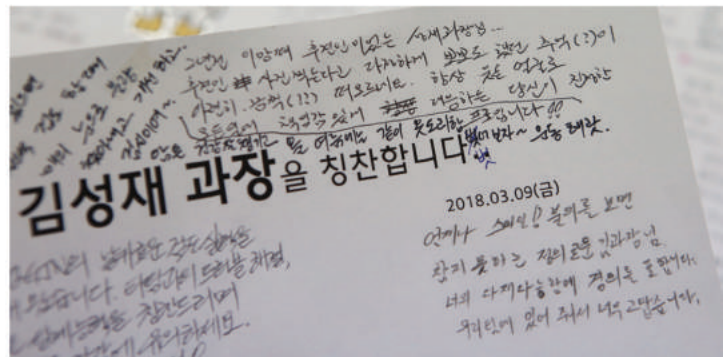
쌍방향 소통의 효과 생산성 향상으로

<금요 세미나>는 몇 년째 이어오는 중요한 시간이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성형해석그룹과 설계1, 2 그룹으로 나뉜 팀원 모두가 참석한다.

“이 시간의 가장 큰 목적은 ‘공유’입니다. 팀원들이 설계하거나 해석하는 각 아이템마다 설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템별 설계 기준과 특징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죠.”

설계 시 중요한 부분은 불량 및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PNL의 형상 및 재질의 다변화, 생산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설계 기준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매주 세미나를 통해 직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다.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팀원들은 세미나 전에 회의 자료를 공유 폴더에 저장한다. 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안건 역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자유로움은 세미나 시간에 더욱 빛을 발한다. 누구나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 의견을 보탠다. 후배 사원은 선배 사원의 경험에서 노하우를 습득하고, 선배 사원은 후배 사원의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다. 금형설계팀의 세미나는 쌍방향 소통의 정석이다. 세미나에 대한 구배성 사원의 생각. “한 사람이 모든 아이템에 대하여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 팀은 매주 세미나를 통해 동료 아이템의 특성, 문제점, 불량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유사한 아이템을 담당했을 때 불량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업무의 확장성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예요.”

소통의 열매는 다디달다

금형의 시작은 설계다.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오류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형설계팀은 세미나를 통해 오류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세미나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함으로써 금형설계팀, 나아가서는 성우하이텍에 큰 자산을 남기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재료가 변함에 따라 접근해야 할 설계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과 반복될 수 있는 실수를 공유함으로써 설계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이바지합니다.”

<칭찬 릴레이>도, <금요 세미나>도 처음부터 만사형통이었던 것은 아니다. 각자 업무에도 바쁘는데, 동료를 관심과 애정의 눈길로 살펴보거나 세미나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몇 번의 흔들림이 보일 때, 박영재 팀장이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이 두 가지가 팀문화로 자리 잡도록 애써왔다. 롤링페이퍼 작성하는 데 겨우 5분 남짓, 일주일에 한 시간쯤 동료와 함께 얼굴 마주하며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 마음 한 번 고쳐먹으면 그저 쉬운 일인 것을. 그런데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 쉬운 일이 사실 그리 쉽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쉽지 않은 쉬운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금형설계팀을 응원한다. 🌈



빠르고 정교한 ‘스몰볼’의 매력에 빠지다

핫스탬핑 풋살동호회
‘FC HEAT’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경주 시내의
풋살 전용 경기장.
필드마저 꽁꽁 얼어붙어
도저히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겠다고 여겨질 때쯤, 하나둘
밝은 표정으로 필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 핫스탬핑 풋살동호회
‘FC HEAT’ 회원들이다. 풋살에는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기에 추위도 마다하고
이들을 운동장으로 이끈 것일까.





핫스탬핑만큼이나 뜨거운 FC HEAT

FC HEAT 동호회 활동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8시 전 경기장에 모인 회원들은 우선 몸을 풀고 바닥을 툭툭 차보며 몸과 그라운드와의 컨디션을 점검했다. 이런 날씨에는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우려가 커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준비운동 시간도 평소보다 더 길다. 전체 인원 27명 중 이날 모인 회원은 14명. 근무시간이 달라서 전원이 한 번에 다 모이기는 쉽지 않다. 보통 10명 이상이 모이면 경기를 진행한다. 귀 끝이 얼 듯한 날씨에도 정작 회원들의 눈빛은 기대에 차 반짝인다.

드디어 첫 경기 시작! 풋살은 축구에 비해 좁은 경기장 특성상 움직임이 많다. 쉴 틈 없이 짧은 패스를 수시로 주고받으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진다. 빠른 공수 교체와 활발한 움직임. 이것이 바로 풋살의 매력이다. 몇 차례 공수 전환을 하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사이 준비운동으로도 채 풀리지 않았던 몸에서 열기가 일기 시작한다. 동호회 이름인 'FC HEAT'가 무색하지 않게 추운 날씨를 녹일 만큼 열정적이다.



“

팀원들에게 한마디

- ✕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열정으로 활동합시다!
- ✕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운동해요.
- ✕ 다치지 말고 즐겁게!
- ✕ 잘하지는 못하지만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 ✕ 우리 팀원 모두 감사합니다!
- ✕ 사람이 많아야 경기가 재밌어요, 많이 참석해주세요! 오래 갑시다!

”



밖에서 한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풋살장 휴게소에서는 나머지 회원들이 난로에 고구마를 굽느라 한창이다. 15분간 경기를 뒀 회원들을 기다리는 것은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익은 군고구마. 군고구마는 추운 겨울날에 먹어야 제 맛이 아닐까. 한 게임 신나게 뒀 후라 더 꿀맛이다. “풋살 경기를 통해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손과 발로 하는 소통의 진수를 느낍니다. 경기 중에는 말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거든요. 서로 눈빛을 읽고, 손발 맞추어 골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어요.”

뜨끈한 고구마로 요기를 하던 회원들이 풋살의 매력에 대해 입을 모았다. FC HEAT가 결성된 것은 지난해 8월께. 마음 맞는 회원 몇몇이 한두 차례 소규모로 경기를 하는 사이 입소문이 퍼졌고, 관심에 힘입어 지원자를 모집하여 정식 동호회로 이름을 올렸다. 창단 멤버인 보전반 윤준영 사원이 회장직을, 출하자재반 김태훈 조장이 총무를, 핫스탬핑관리팀 인승운 사원이 코치를 맡고 있다. 장비 및 의약품 구매, 경기복 제작, 간식비 구입 등 소요 경비는 회사에서 매월 제공되는 활동비로 충당한다.



**FC HEAT와
함께하고 싶은
핫스탬핑 직원분들,
연락주세요!**

회장 윤준영 사원(010-9314-5235)
총무 김태훈 조장(010-4651-1300)
코치 인승운 사원(010-4010-1159)
주장 성희찬 대리(010-8824-8041)
주장 장영호 기사(010-9337-0207)



결성 반 년, 첫 대회 출전을 기다리며

올해 8월이면 동호회가 결성된 지 1년을 맞는다. 사내 다른 동호회들에 비하면 신생 동호회라 아직 외부 대회 출전 경험은 없다. '공통의 관심사를 추구하며 회원 모두 활력을 얻어가는 것'이라는 동호회의 결성 목적처럼, 지금까지는 그저 퇴근 후 모여 운동하며 평소 근무 시간이 달라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동료들과 우호를 다지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차츰 모임 횟수가 늘어나고 경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최근에는 지역 대회 출전 여부도 고민 중이다.

“성우하이텍 사내 풋살 동호회 중 탑 3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워낙 실력이 뛰어난 팀들이 많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선 매년 열리는 회장님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에 참가해서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팀의 코치인 인승운 사원이 FC HEAT의 현 상황에 대해 냉정히 분석했다. 아직은 실력을 키우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매 모임마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회원들의 열정이라면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지만은 않다.

짧은 휴식을 마친 회원들은 다시 찬바람 부는 필드로 나간다. 일과 후 특별히 시간을 내어 활동하는 만큼 피곤할 법도 한데, 잔디를 밟는 걸음은 다들 가볍기만 하다. FC HEAT 멤버들은 연습이 있는 날에는 퇴근이 더 간절히 기다려진다며, 더 많은 사원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자격 요건 없음. 함께 즐길 마음가짐만 챙기시길. FC HEAT의 문은 핫스탬핑 가족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爲國獻身軍人本分

위국헌신군인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1910년 3월 26일 여순 감옥, 사형 집행을 앞둔 안중근은 재판 동안 자신을 경호했던 헌병 지바(千葉十七) 간수에게 수목을 써준다.

안중근의 죄명은 ‘대일본제국 공작 이토 히로부미 암살’ 그러나 안중근은 당당했다. 그에게 이토는 조국 침략의 원흉이며 동양 평화를 깨트린 장본인인 동시에 자신의 활동지역에 겁 없이 쳐들어온 적장이기도 했다. 이토를 온전히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이었다. 스스로 한 치의 잘못이 없었던 대한제국 의군 참모총장 안중근은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던 법원 관리들을 물리치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한제국의 참모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나라를 위해 몸 바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오히려 법정에서 이토의 죄목 15가지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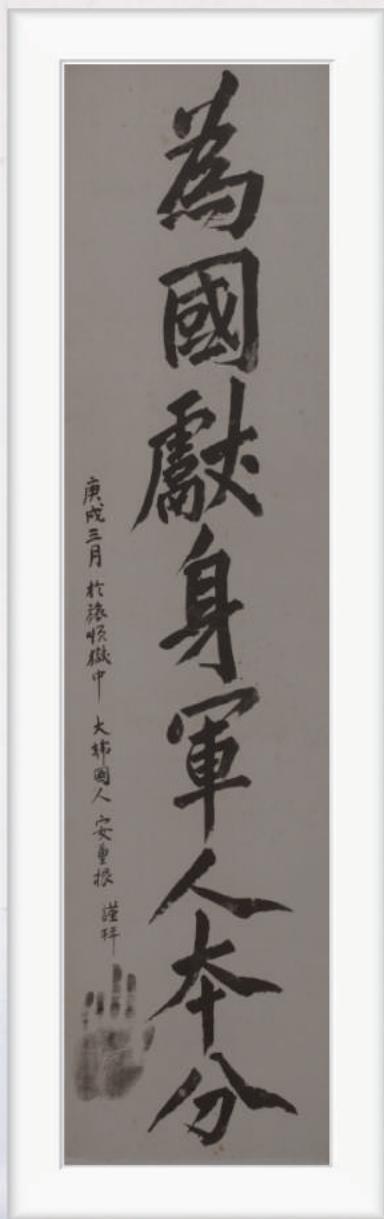
‘위국헌신군인본분’은 이러한 안 의사의 의기(意氣)를 드러내는 글이다. 이런 기개 때문인지 재판과 수감생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를 알게 된 일본인 관리들조차 안중근의 올곧은 성품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목은 “경술삼월(庚戌三月) 여순옥중에서(於旅順獄中)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 삼가 경의를 표하다(安重根謹拜)”라는 18자 아래 안중근 의사의 장인(掌印, 손바닥으로 찍은 도장)으로 마무리된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장인이다. 안 의사는 1909년 2월 동지 12명과 결의의 표시로 왼손 무명지 한 마디를 잘라 ‘단지동맹’을 맺었으며, 여순 감옥에서 쓴 글씨에 낙관 대신 무명지 한 마디가 잘린 장인을 사용하곤 했다. 이후 이 장인은 안중근 의사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안중근 의사 사후 이 수목을 보관해오던 지바는 부인과 조키딸 미후라에게 수목을 남겼고, 유가족이 이를 1980년 8월 23일 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증하였다. 서예적 가치뿐만 아니라 일본인 간수조차 감동시켰던 안중근의 충절을 드러내는 유묵이란 점에서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1992~1993지정편-』(문화재관리국, 1994)

安重根義士遺墨 안중근의사 유묵
爲國獻身軍人本分 위국헌신군인본분



퍼메트 569-23세, 32.8cm x 137cm

안중근의사기념관 소장

*자료 출처: 문화재청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성(聖)스러운
행위'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자식을 안아주는 따스한 어머니의 손.
환자를 살려내는 의료인의 손.
말은 바 직무를 충실히 행하는 손.
그러나 단연 '기도하는 손'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나를 위해 혹은 남을 위해
자신을 절대자에게 내맡기며
간절한 바람을 전하는 행위 말이다.
여기, 자기희생과 구원을 담은 작품
'기도하는 손'이 있다.

기도하는 손Praying Hands, 1508
알브레히트 뒤러
종이 위에 브러시와 잉크
29.1×19.7cm
오스트리아 미술관 Albretin 소장



구원이 된 미술 작품 뒤러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은 뒤러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작품 속 손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뒤러 못지않게 예술적 소질을 보이던 그의 형제라는 설도, 함께 공부하던 절친한 친구라는 설도 있다. 두 가지 설의 공통점은 형제, 혹은 친구인 그들 모두가 뒤러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다는 점이다. 뒤러는 이들의 뒷바라지 덕분에 미술 공부를 하여 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 후에는 자신 또한 그들을 기꺼이 후원하겠다고 했다는 뒤러.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거친 노동으로 둔감해진 손으로는 더는 섬세한 그림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느 날 형제, 혹은 친구를 찾아갔던 뒤러는 그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제 손은 이미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제 뉘를 뒤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감동의 순간을 남기고 싶었던 뒤러는 정성을 다해 손을 그리기 시작했다. 주름지고 투박하고 거칠지만, 뒤러를 위대한 화가로 이끌어준 자기희생의 표본이자 가장 아름다운 손은 뒤러에 의해 가감 없이 표현되었다. 뒤러를 구원해준 한 사람의 희생이 미술작품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뒤러는 훗날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꼭 특정한 신이 아니어도 좋다. 거창할 것도 없다.
취업 합격, 승진, 현장에서의 안전한 하루,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등
기도로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위해 진심을 담는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지 않을까. 🙏

축구 경기의 판도를 바꾸는 거미 손, 골 키 퍼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다.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임에 틀림없지만
승패를 판가름하는 데는 '손'의 역할도 그 못지않다.
수비의 최전방,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
신들린 세이브는 어떤 공격수의 결정적 슈트보다
짜릿하다.

* 이미지 출처 _ 구글이미지
국제축구연맹 FIFA <http://www.fifa.com/>

야신의 기록

- 페널티킥 통산 150회 선방
- A매치(국가대항전) 실점률: 0.89
- 1963년 발롱도르 수상
- 9차례 발롱도르 골키퍼 부문 1위(56, 57, 59, 60, 61, 63~66)



레프 야신, 전설이 되다

레프 야신은 옛 소련의 전설적인 골키퍼다. 1950년대부터 소련 축구의 전성기를 이끈 장본인으로, 1956년 멜버른 올림픽 금메달, 196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우승,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4위의 주역이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선방률을 기록하는 등 야신의 신들린 선방은 그에게 '검은 거미'(주로 입던 유니폼 색이 검은색이었다), '신의 손' 등 다양한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골키퍼로는 처음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했으며(1963년) 이 기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1994년부터 그의 이름을 딴 '야신상'을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실점률, 슈팅 방어 횟수, 페널티킥 허용비율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되는 야신상은 각국 대표 팀 골키퍼들이 꿈꾸는 최고의 영예로 꼽힌다. 러시아 축구의 자존심이자 전설 야신은 2018 러시아월드컵 공식 포스터에 등장하기도 했다.

1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가장 권위 있는 개인상. 1956년부터 프랑스 일간지 <프랑스풋볼>의 주도하에 월드컵 본선 진출 경험에 있는 96개국 기자단 투표로 선정된다. 오로지 성과로만 평가하여 권위와 객관성을 자랑한다.

2 무실점 경기



잉글랜드의 은행 고든 뱅크스

1960~70년대 잉글랜드 풋볼 리그의 최고 수문장이다. 골문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그의 활약에 영국인들은 그에게 '영국의 은행(The bank of England)'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1966년 잉글랜드에 월드컵 유일의 우승 트로피를 안겼으며,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펠레의 헤딩슛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아내며 전 세계인들에게 단단히 눈도장을 찍었다.

전차군단의 전설 올리버 칸

올리버 칸은 90년대~2000년대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선수로, '녹슨 전차'라 불리던 2002년의 독일을 월드컵 결승까지 이끈 장본인이다. 골키퍼로는 유일하게 월드컵 골든볼과 MVP를 수상한 선수이며, 그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세운 최다 클린시트(204회)² 기록은 여전히 난공불락이다.

아주리 군단의 자존심 잔루이지 부폰

야신에 이어 발롱도르 골키퍼 부분 1위에 최다(6회)로 오른 이탈리아의 수문장이다. 제16회 프랑스 월드컵부터 20회 브라질 월드컵까지 무려 5회에 걸쳐 월드컵 본선무대를 밟는 대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이탈리아가 6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날 대표팀 은퇴를 발표하며 그가 흘렸던 눈물에 많은 축구 팬들이 안타까워 했다.

스페인의 철벽 이케르 카시야스

넘치는 활동량과 뛰어난 순발력을 앞세워 무적함대의 전성기를 이끈 스페인의 자랑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첫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안은 그는 A매치 167경기 중 100경기 이상을 클린시트로 작성한 역사상 유일한 선수이다. 지난 4월 개인 통산 1,0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하며 여전한 저력을 과시했다. 

SNS, 세상을 변화시킨 ‘손가락 혁명’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s)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사회적,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까지 발전했다. SNS 플랫폼을 바라보는 사회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과 측면에 주목하고 있으며 SNS가 주는 사회적 파급력만큼 마케팅 측면에서나 사회적 문제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글 | 이채희 콘텐츠 기획 전문 광고회사 더쿠 팩토리 대표다. 한국 마케팅 사관학교 대표를 겸하며 크리에이터, 마케팅/창업 컨설턴트, 공인 마인드맵 강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동기부여 강연가로 활동 중이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마케팅 파트너로 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소상공인, 프리랜서, 직장인, 학생들을 위한 마케팅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더쿠 팩토리: www.theqoolactory.com 한국 마케팅 사관학교: www.kma.ac



1인미디어, 1인 콘텐츠 시대가 열린다

공중파 시대가 저물고 다채널 시대를 맞이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기존에는 가족끼리 웅기종기 TV 앞에 모여 앉아 방송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대로 미디어를 섭취했다. 정각 9시에 흘러나오는 뉴스가 아니면 주말 드라마를 봐야만 하는 등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SNS는 이러한 단방향의 미디어 섭취를 쌍방향, 다방향으로 확대했다. 드라마, 예능의 한 장면을 '옴짤'이라 불리는 짧은 동영상, 글로 재해석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고 교감하기 시작했다. 방송국이 편집해준 대로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콘텐츠를 편집하고 송출하기에 이르렀다. SNS는 만년 소비자였던 유저를 생산자로 이끌었다. 자연스럽게 1인미디어,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기획사'라고 하면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소속사의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된 일반인들을 지원하는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근래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이미지 기반 SNS인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러한 일반인들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유명 연예인의 흠피 주소를 찾아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동년배 일반인 스타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동질감이 떨어지는 기존 스타보다 근처에 있을 법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영업시대, SNS마케팅에 주목하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기존 마케팅의 영역에도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업에서 내보내는 일방적인 15초 TV광고가 아닌, 댓글이 달리고 공유가 되며 인플루언서에 의해 재편집되는 'SNS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마케팅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유용한 플랫폼이다. 기본적으로 특정 채널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여 자사의 브랜드나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할 때, 해당 채널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홍보 효과는 커진다.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잠재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굳이 여러 채널을 활용하지 않고도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 한 곳에서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더불어 모바일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으며 사진과 동영상 업로드에 따른 서버 트래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스타그램의 유저 반응도는 이미 페이스북을 앞섰고, 비즈니스 계정 인사이트 분석까지 가능하니 마케팅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에는 틀림없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수는 월간 8억 명을 넘어섰다. 즉,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릴 잠재 고객이 8억 명에 이른다는 말이다. 한방향으로 광고 전단을 돌리던 시대를 넘어 생산자가 아닌 유저, 소비자 스스로 제품을 알리고 공유를 하는 '소비자 영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을 비즈니스 플랫폼이나 개인 브랜딩을 위한 최적화 장소로 꼽고 있는 추세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브랜딩 팁

기업이든 개인이든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브랜딩은 점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일반 유저들도 따라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브랜딩을 위한 팁을 공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팔로우 추가 전 선행 작업을 수반할 것

선행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팔로우 추가를 하면 단기간 팔로워 확보가 어렵다. 우선 팔로우 추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유저들이 '관심 가질만한' 콘텐츠를 채우는 것이다. 운영하는 업체, 상품을 홍보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부터 홍보용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유저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진으로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 팔로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광고성이 짙은 콘텐츠는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업 계정 또는 처음부터 한 가지 콘셉트로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콘셉트로 운영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특정 콘셉트에 한계를 지을 필요 없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책, 여행, 음식, 일상, 취미생활, 관심사 등)를 업로드 하면 된다. 초기에는 콘셉트 없이 운영하더라도 후에 본인의 관심 분야를 정해 브랜딩을 해나가면 된다. 만약, 특정 콘셉트로

채널 운영 방향을 정했다면 해당 콘셉트와 관련된 콘텐츠를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맛집 채널을 운영 중인데 의류제품이나 헬스용품 사진 등 콘셉트와 전혀 상관없는 콘텐츠를 업로드 하면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본문 내용은 한줄 정도의 성의 없는 글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적절히 녹여 재미있거나 공감이 갈 만한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팔로우 추가

최소 15개 이상의 콘텐츠가 채워졌으면 팔로우 신청을 한다. 처음에는 맞팔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해서 팔로우를 빠르게 확보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맞팔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팔로우 신청을 하면 팔로잉만 계속 늘어나 본인 계정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본인이 원하는 해시태그로 타겟팅 해서 팔로우 신청을 해도 된다. 하지만 관심 분야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라고 해서 맞팔을 모두 다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팔로우 신청 시 맞팔 확률이 높은 해시태그

아래의 해시태그는 광고계정에서도 많이 사용
중이므로 팔로우 신청 시 광고계정은 스킵하고
신청하면 된다. 인기 게시 글에 노출된 계정의
경우 맞팔을 받아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최신 글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맞팔 #맞팔해요 #맞팔100 #맞팔100프로
#맞팔선팔 #맞팔선팔100 #맞팔환영
#맞팔해용 #맞팔해요우리 #맞팔합시다
#맞팔신청 #맞팔좋아요 #맞팔스타그램
#맞팔그램 #무조건맞팔 #맞팔선팔환영
#맞팔가요 #맞팔고 #맞팔고고 #맞팔ㄱ
#맞팔감사 #맞팔은사랑입니다 #맞팔합니다
#맞팔대환영 #맞팔의리 #맞팔가능 #선팔해요
#선팔신청 #선팔100 #선팔좋아요 #선팔후맞팔
#선팔은맞팔 #선팔맞팔100 #선팔하면맞팔
#선팔하면맞팔가요 #선팔감사 #선팔스타그램
#선팔맞팔 #선팔환영 #선팔맞팔환영
#선팔은사랑입니다 #선팔맞팔고고 #선팔대환영
#인친해요 #인친환영 #소통해요
#소통스타그램

어느 정도 팔로워 확보가 되면 브랜딩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해시태그로 타겟팅을 해가면서
팔로우 신청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희망하는 해시태그의 사진을 미리
올려놓고 팔로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 해시태그로
타겟팅을 하고 싶으면 최소한 본인 피드 상위에는
관련 이미지가 있어야 맞팔 확률이 높아진다.

SNS 플랫폼은 지금까지처럼 계속 진화할 것이다.
오프라인 기반 마케팅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도 마케팅 기회가 넓어질 것이며
동시에 치열한 마케팅 플랫폼 선점 경쟁이 지속될
것이다. 무한 경쟁과 동시에 무한의 기회가 SNS
상에 펼쳐지고 있다. 마케팅을 영위해 이윤을 내는
것이 최대의 미덕인 기존 대기업 외에도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SNS 상에 등지를
트는 개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의 장에서 자신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얻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면, 매일
바뀌는 SNS 트렌드 속에서도 자신만의 최적화
루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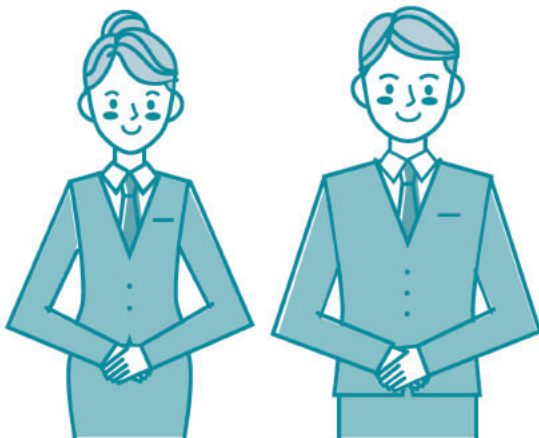
소통 능력을 Up그레이드 해주는 한 수, **제스처**

뛰어난 웅변가로 통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핵심 스킬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그는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다양한 손동작을
사용하여 청중의 집중도를 높이고 공감을 끌어내었다.
메라비언의 법칙(The Law of Mehrabian)에 따르면
상대방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표정, 자세, 제스처 등)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비언어적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말의 전달력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
당신의 소통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제스처에 대해 소개한다.



자세



업무를 하다 보면 단상에 올라 발표를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발표자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자세이다. 발표 시 설마 무게 중심을
한 쪽 다리에 두어 삐딱한 자세를 취하는 성우인은
없기를. 양쪽 다리에 무게 중심을 고루 실어 당당한
자세로, 어깨를 바로 펴고 서는 게 좋다. 바른
자세만으로 청중은 발표자를 자신감 있고 단정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표정



청중 앞에 서면 입이 바짝 마르고 심장은 터질 듯 뛰어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이럴 때 가볍게 미소를 짓자.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청중 역시 약간의 긴장을 하게 마련인데, 가벼운 미소 한 번으로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다. 당신에 대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한 가지 팁을 덧붙이자면, 청중 한 사람 한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는 것도 좋다. 이를 통해 청중과 발표자 사이에는 유대감이 형성되고 청중은 발표자를 친밀하게 느끼게 된다.

제스처



자세와 표정으로 소통을 위한 기본은 갖추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더욱 세련되게 살려줄 한 수를 꺼내들 차례다. 바로 제스처다. 마치 로봇처럼, 딱딱하게 경직된 자세로 가만히 서서 말하는 사람과 손짓을 써가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제스처는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이해를 돕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발표자의 말을 더욱 잘 기억하게 됨은 물론이다. 단, 정신없이 과한 제스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피할 것.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손을 이용한 제스처다.

손을 이용한 제스처 Tip

-  불끈 쥐 주먹: 강력한 주장이나 각오를 표현
-  한 손을 사선으로 세워서 포인트를 짚는 손동작: 감탄이나 강조 표현
-  두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여 밑으로 누르는 듯한 손동작: 정숙한 분위기를 요구할 때
-  가슴 앞에서 합친 두 손바닥을 좌우 양쪽으로 서로 가르는 손동작: 분리, 양단을 표현
-  양손을 가슴 앞으로 합치는 손동작: 단합을 강조하는 표현
-  손바닥을 위로 하여 양손, 혹은 한 손을 뻗는 손동작: 열린 자세, 오픈마인드를 강조하는 표현 

더 나은 사회구조 확립과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미국 영화계의 큰 손으로 불리던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폭로하는 글이 트위터를 통해 전해졌다.
무려 30여 년간 여직원 등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해왔다는 폭로에 영화 팬들을 충격에 빠졌다.
폭로는 단발에 그치지 않고 같은 피해를 당한
다수의 폭로로 이어졌으며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시태그(#MeToo)를 달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미투 운동(영어: Me Too
movement, #MeToo)의 출발점이었다.

들불처럼 퍼져나간 미투 운동은 지난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과거 검찰 간부에게 당했던 성추
행을 밝힌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서도 본격화되었다.

문화, 정치, 학계 등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MeToo를
달고 과거, 혹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해 상황을
밝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MeToo로 응하며 함께 마
음 아파해주었고 가해자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면치 못
하게 되었다. 그동안 쉬쉬하던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공
론화할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이
었다. 이처럼 미투 운동은 가해자가 권력으로 행한 잘
못된 행동을 고발하고 사회적 연대를 구성해 진실을 규
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우리 사회 곳곳
에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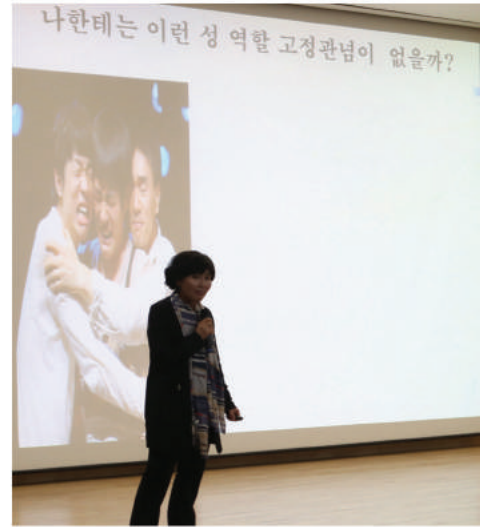




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롱 및 성폭력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 4월 19일과 26일, 우리 회사는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성상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혜임 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 내 성



희롱의 대처방법 및 예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성우인들은 여는 때보다 집중하여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갈 것을 다짐하였다.

미투 운동이 폭로와 사과로 단순히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듯, 이런 교육을 통해 성우인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나의 직장생활 성희롱 감수성은 어느 수준일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나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희롱 판단력 점수를 알 수 있다.

- 성희롱 자가진단 앱 내려받기(핸드폰 설치)
- 앱 실행 → 성희롱 판단력·성희롱 감수성 점검
- 결과 보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체크리스트 시작

체크리스트는 "직장 내 성희롱 판단력(20문항)" 및 "성인지 감수성(20문항)"의 두 영역을 위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응답하시고, 진단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판단력 점검
(20문항)

성인지 감수성 점검
(20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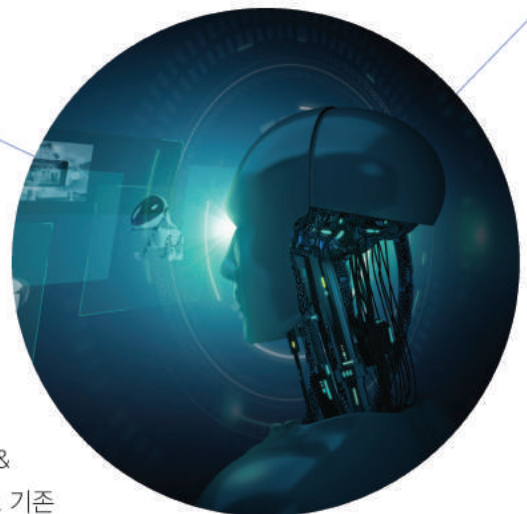
도전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미래 자동차 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Consumer Electronic Show, 국제가전제품박람회)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자동차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CES가 가전(家電)쇼가 아닌 차전(車電)쇼"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자동차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 과시용으로만 비춰지던 자율 주행이 CES2017을 기점으로 현격하게 완성도가 높아져 2020년 경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년이 지난 CES2018에서는 한층 더 기술이 정교해졌고, 반도체와 센서, 소프트웨어 등 모든 기술에서 경계 없는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진화하는 것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덕분이다.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이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지식을 얻는 것을 뜻한다. 이세돌 9단을 이겼던 알파고(AlphaGo)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된다. 이로써 '구글(Google), 애플(Apple)이 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어서 구글, 애플과 같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업들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완성차 업체에 ICT 기업들까지 가세하니 자동차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자율주행차 등장이 기존 자동차 업계에 주는 긴장감은 ICT 기업의 가세뿐만 아니다. 영국의 금융기관 바클레이즈는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2040년까지 자동차를 소유하는 비중이 5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자율주행차 1대가 전통적인 자동차 7대를 대체하는 효과를 내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세의 흐름은 자율주행차이기에 이를 거스를 수 없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공유시장(Car Sharing Market)을 선점하고자 우버(Uber), 리프트(Lyft) 등의 기업에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변화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는 악재이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은 ‘신창타이(新常态)’를 선언하며 외형적인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대신,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경제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임으로서 계층 간 소득격차를 축소시키고,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가 될 것이라는 계획이다. 중국 노동자 소득의 증가는 현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기업들의 인건비 증가는 물론, 대한민국으로 일하러 오던 중국 노동자들의 감소를 가져와서 이중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현실적 위협이다. 150개 국, 3,9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CES2018에서 중국 기업이 3분의 1을 차지했다. 한국기업은 150개로 중국의 약 10분의 1 수준이며, 2017년에도 중국은 1,3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중국 약진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 화웨이(華為)와 바이두(百度) CEO가 CES2018 기조연설을 하였는데, 이는 중국 기업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일부 부문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늘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중국의 눈부신 성장은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먹구름을 몰고 올 예정이다.

현실화된 자율주행차와 눈부신 중국의 성장은 우리에게 위기가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

“도전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우리 성우하이텍은 3월 5일, 성우혁신사관학교(SHiOTS, Sungwoo Hitech Innovation Officer Training School)를 출범하여 도전의 길을 택했다. 



한국인 첫 UN기구 수장

2003년, UN 산하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이종욱 박사가 취임했다(UN 사무총장에 반기문 장관이 취임하기 무려 4년 전). 안양의 성 나자로 마을에서 시작하여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 사모아에서 한센병 환자를 열정적으로 치료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자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의 자문관으로 국제기구 생활을 시작한 지 20년 만이었다.



이종욱 박사가 WHO 사무총장에 취임하며 내놓은 공약.

“2005년까지 300만의 에이즈환자에게 치료제를
보급하겠습니다(‘3 by 5 캠페인’)”

‘불가능’이라는 직원들의 대답.

“안 된다고 생각하면 수많은 이유가 있고, 그럴듯한 핑계가
생기지. 과연 옳은 일이고 인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해야 해. 옳은 일을 하면, 다들 도와주고
지원하기 마련이란 걸 명심하라고.”

1년 평균 150일을 출장, 비행기는 항상 이등석 좌석, 1500cc차를
승용차로 사용하며, 아파트 한 채도 소유하지 않았다.

“우리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가 낸 분담금도 있다. 그 돈으로
호강할 수 없다.”

2005년, 300만에 못 미치는 100만의 환자에게 치료제가 지급되었다.
‘3 by 5’는 실패했다.





실패에 대한 그의 생각.

“적어도 실패는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남기는 법이야.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야.”

2003년, 전 세계 4600만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한 해에만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감염 인구의 3분의 2는 아프리카에 있었고, 바이러스는 모든 나라에 퍼져 있었다. 40만 명만을 구할 수 있는 치료제의 90% 이상은 잘 사는 나라 사람들만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2년 만에 100만 명의 환자에게 치료제를 보급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아프리카 에이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a Man of Action’, ‘작은 거인’, ‘아시아의 슈바이처’ 이종욱 박사는 2006년 5월 22일, WHO 총회 준비 도중 과로로 쓰러져 이 세상을 떠났다.

이종욱 박사(1945.4.~2006.5.)

한국인 최초의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전문기구 최고 책임자, 에이즈에 맞서 '3 by 5' 사업을 벌였고, A(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소아마비와 결핵 예방, 흡연 규제 등으로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사진 출처: WHO





여름만 기다릴까보냐? 가자! 축제 속으로~

유달리 춥게 느껴지던 꽃샘추위가 누그러졌다.

옷이 가벼워지나 싶더니 태양은 여름을 예고하는 듯 햇볕을 내던진다.

한여름을 기다리고만 있을쏘냐!

가족과 함께 즐길 이색적인 6~8월 축제들을 소개한다.





정남진장흥물축제 물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지상 최대의 물장난이 장흥에서 벌어진다. 군민과 관광객, 진행요원이 뒤엉켜 물싸움을 벌이는 '살수대첩 퍼레이드'는 편도 적도 없는 웃음이 가득한 난장판이다. 수상자전거, 우든보트, 희망의 줄배, 카누, 제트스키, 플라이보드 등 탐진강에서 즐길 다양한 탈거리와 프로그램이 있다. 또 약초를 이용한 스파 개념의 '천연약초 힐링 풀'과 탐진강에 서식하는 장어, 메기 등 다양한 어종을 잡는 '맨손 물고기잡기'는 꼭 체험해야 한다. 어두워지는 저녁, 아쉬울라치면 야간 EDM 파티가 열기 가득한 축제의 밤을 이어준다. 육상에는 대형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가 마련되어 있어 더욱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작년에는 3일 만에 30만 명이 찾아와 해마다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3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이 당연하다! 어릴 적 어른들에게 혼나가며 했던 물 장난질, 이제는 축제에서 가족이 함께 즐겨보자.

기간 2018.7.27.(금) ~ 2018.8.2.(목)

장소 장흥군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문의 061-863-7071

홈페이지 www.jhwater.kr



포항국제불빛축제 철강도시에서 펼쳐지는 불과 빛의 향연



기간 2018.7.25.(수) ~ 2018.7.29.(일)

장소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문의 054-289-7851~3

홈페이지 <http://phcf.or.kr>

‘불과 빛의 도시’ 포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여름축제다. 형형색색의 휘황찬란한 불꽃쇼가 펼쳐진다. 해가 거듭되며 국제 규모로 성장 중이다. 작년에는 스페인과 미국이 참가했다. 축제콘텐츠도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산업과 문화적 요소를 엮어서 ‘국제불꽃쇼’, ‘불빛 퍼레이드’ 등 주요 행사와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 ‘뽕뽕! 밤바다대전’, ‘뽕뽕! 물총대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영일만 바다의 아름다운 야경을 무대로 약 10여만 발의 불꽃이 터지며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다. 주요행사는 저녁에 열리니 낮 시간대를 활용하여 고래고기, 물회, 대게 등 먹거리여행을 즐기거나 내연산(710m) 청하골로 짧은 피서를 다녀와도 좋겠다. 저녁에는 치맥과 다양한 간식을 먹으며 불방&먹방을 제대로 즐겨보자. ‘청송 도깨비 사과축제’(11월경)와 함께 2018년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





봉화은어축제 Hot한 여름! Cool하게! 은어 잡GO~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4년 연속 우수축제로, 청정의 봉화 내성천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여름축제다. 개막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예술문화한마당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어신춤배우기', '수상놀이존', '추억의 사진관'과 같은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된다. 특히 '은어반두잡이', '야간은어잡이', '은어숯불구이체험'은 빼놓을 수 없는 체험행사다. 은어숯불구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그 이상이다. 은어구이 향기는 며느리가 집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한다고! 전시·부대행사('은어주제관', '은어토피어리·트릭아트 포토존', '내성천 모래조각 전시' 등)가 축제를 더욱 풍성케 한다.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 토속음식과 농특산물, 은어할어도 판매되니 지갑 두둑이 가야 하겠다. 연계행사로 '가족건강걷기', '수박서리 및 삼굿구이 체험', '봉화문화유적탐방 버스투어', '봉화워터파크', '가재예술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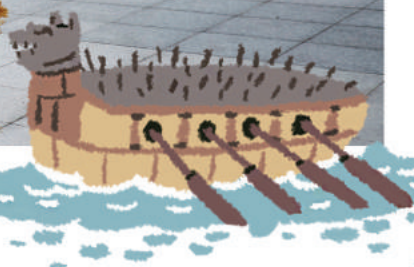
기간 2018.7.28.(토)~2018.8.4.(토)

장소 봉화군 봉화읍 체육공원, 내성천 일원

문의 054-679-6313~5

홈페이지 www.bonghwafestival.com/eunuh





통영한산대첩축제 동양의 나폴리에서 충무공을 기념하다



세계 4대 해전 중 가장 위대한 해전이었던 한산대첩과 성웅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축제다. 한산대첩의 역사적인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특히 한산 앞바다에서 재현되는 학익진 해전은 그때 당시로 돌아간 듯 실감난다. 또 '한려수도 바다축제행사'가 함께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여름레포츠를 제공한다. '고유제', '거북선 노젓기대회', '이순신 장군 전통무예시연', '전국남녀궁도대회' 등 주행사와 더불어 '수군체험 노젓기대회', '카누 대회'와 '공중 한산해전', '이순신의 해상 활쏘기', '거북선과 함께 놀자', '왜군 좀비와 싸워라' 같은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인 이순신학교, 이순신 수군훈련장 등은 청소년들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간 2018.8.10.(금) ~ 2018.8.14.(화)

장소 문화마당 및 병선마당, 통제영, 이순신공원 등 통영시 일원

문의 055-644-5222

홈페이지 www.hansanf.org



부산국제모터쇼 'Beyond Innovation, Into the Future'

부산국제모터쇼는 전시행사를 넘어 대표적인 자동차 축제라 할 만하다. 올해는 '혁신을 넘다,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세계 각국의 승용차, 상용차, 이륜차, 특장차 등 완성차와 콘셉트카를 만나볼 수 있다. 참가업체는 10개국 120개사 2,800부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ICT기술에 기반한 자율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대체에너지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와 혁신기술을 미리 만나보고 체험할 수 있어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얻는 장이 될 것이다. 관련 학술대회 및 세미나 '미래자동차 시승 체험장', 애프터마켓전 '자동차 아트콜라보전'과 같은 체험형 부대행사와 동시행사들 역시 다양하게 준비된다. 브랜드별 고객과의 이벤트도 마련되니 각 부스를 천천히 관람하며 즐기자. 유명 모터쇼 모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즐거움도 잊지 말자. 📸



기간 Press Day 2018.6.7.(목), 관람 2018.6.8.(금)~17.(일)

장소 BEXCO

문의 051-740-3516, 7459

홈페이지 www.bimos.co.kr/2018

“미래자동차와 혁신기술을 미리 만나보고 체험할 수 있어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얻는 장이 될 것이다.”



독일의 비즈니스 매너



매너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Manner Makes Man(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이라고 하지 않던가. 세계 최강의 자동차 차체 회사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성우인이라면 각 국가별 비즈니스 매너쯤은 익혀두자.

영화 <킹스맨>의 명대사처럼, 각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비즈니스 매너가 성우인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독일의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 알아보자.

* 참고 자료: KOTRA 국가정보 자료

독일의 비즈니스 에티켓 키워드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독일인은 질서와 원칙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보인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 직접적이고 진솔한 표현, 객관적인 자료를 선호한다. 때문에 사업 관련 미팅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로 이루어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분리 또한 철저한 편이라 비즈니스 미팅을 진지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심리가 강하니, 미팅 시 자칫 경솔하게 보일 수 있는 웃음과 유머는 피하도록 한다.



☑ 함부로 웃지 마세요!

업무관계에서 잘 웃지 않는 특성상 독일인은 웃는 얼굴을 사적인 애정표현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독일의 비즈니스 에티켓 키워드 #약속 시간 철저히 엄수

철저한 시간관념을 지닌 게르만 민족의 성향대로 독일인들은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회의나 상담 약속을 소중히 생각해 꼭 지키려고 하는 편이다. 특히 약속 시간은 철저히 엄수해야 한다. 2~3분 늦게 도착하는 것조차 큰 실례가 되는 행동이니 주의하도록 한다. 이미 협의된 사항에 대해 번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불가피하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는 행동을 매우 무례하게 간주한다. 그러니 약속을 잡을 때에는 가능한 시간을 미리 조정하여 큰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게 좋다.

☑ 탄력 근무를 기억하세요!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일괄적인 근무형태를 갖지 않고 8시 전에 출근하여 오후 2~3시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다. 오후 4시 이후 약속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후훗~
시계는
거들뿐



독일의 비즈니스 에티켓 키워드 #미팅 예절과 인사 예절



독일 바이어와 첫 만남 시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정장차림이 필수이다. 전문 사무직이 아닌 실무에 투입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에는 세미정장이 적합하다. 비즈니스 만남 시 흔히 악수를 나누게 되는데, 악수를 할 때는 시선을 마주치며 손을 꼭 잡아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단, 한국에서처럼 악수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독일인들은 그것을 예의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아는 척을 하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지나가다 만나는 모르는 사람이나 엘리베이터·화장실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가볍게 인사 나누는 것이 예의다.

☑ 인사는 꼭 받아주세요!

독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의 인사라고 해도 받아주지 않으면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긴다. 그러니 인사를 꼭 받아주도록 한다. 단, 아는 사이라고 해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으며, 식사는 했는지, 어디에 가는지 등의 개인적인 질문은 삼간다. 🇩🇪

밥상 위의 향긋한 봄 향기~ 봄나물 밥상

꽃향기와 봄 햇살이 몸과 마음을 녹이는 봄. 하지만
춘곤증으로 생활에 의욕이 떨어지고 입맛마저 잃어버려
건강에 적신호를 주기도 한다. 향긋하고 영양도 풍부한
제철 봄나물 밥상으로 똑똑하고 맛있게 건강을 지키자.

정선 산골이 깊은 맛 '곤드레나물밥'

40년 전, 첩첩이 둘러싸인 깊은 산세 덕분에
강원도 정선은 쌀이 귀했다. 사람들은
곤드레나물을 따다가 죽을 끓여 먹었다. 세월이
흘러 밥으로 조리법이 바뀌고, 특유의 구수한 맛과
건강식으로 입소문이 났다. 곤드레나물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 영양이 고르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과 이뇨작용을 돕는다. 부산 남천동
맛집으로 유명한 '곤드레밥 세실'은 다양한 봄나물
반찬과 함께 곤드레밥을 즐길 수 있다. 맛깔스러운
비빔간장에 쓱쓱 비벼 크게 한입 먹으면 입안
가득 봄을 품는 듯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가
곤드레만드레 취한 사람 같다고 곤드레라 불리지만
원래 이름은 '고려엉겅퀴'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귀한 봄나물이다.

곤드레밥 세실 | 부산 수영구 수영로475번길 43
T. 051-623-9898

건강 지키는 봄나물 패키지!



봄나물계의 엄친아 '엄나물(은계)'
쌈쌀하고 감칠맛이 좋아 식도락가에게
인기 좋은 고급나물이다. 칼로톡신,
칼로사포닌 성분이 호흡기에 좋아
미세먼지가 많은 봄에 좋다. 염증에도
특효다.



팔방미인 건강식 '취나물'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칼륨 함량도 높아 염분 배출 및
혈액순환을 돕는 영양식이다.

취나물을 얹은
곤드레밥





방풍나물 반찬

몸에 좋은 치자밥과 함께 먹는 '방풍나물(갯기름나물)'

풍을 예방한다는 방풍나물은 식감이 좋고 향긋하면서도 씹새로운 맛이 좋다. 언제부턴가 봄이면 단골로 식탁에 올라오는 봄나물이 되었다. 나물로 무쳐 먹는 어린잎에는 발한, 해열, 진통 효능이 있다. 뿌리는 진통, 발열, 두통, 신경마비 등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어 약재로 쓰인다. 많이 자란 방풍은 식용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군집으로 자생하는 금오도에서 방풍차 등 특산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다. 양산 통도사 인근의 맛집 '동심'에서는 치자밥과 함께 방풍나물을 즐길 수 있다. 느타리버섯을 넣어 치자로 지은 노릇한 치자버섯밥에 방풍나물을 얹어 먹으면, 깔끔하고 담백하여 없던 입맛도 돌아온다. 방풍나물무침과 엄나물, 장아찌 등 주인이 직접 담근 밑반찬은 과하지 않은 간에 좋은 재료로 만들어 입을 더욱 즐겁게 한다.

동심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신평강변로 78(순지리) T. 055-382-2535



여성에게 참 좋은데~ '쑥'

칼슘·철분·인·비타민이 모두 풍부하여 면역력강화에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여성들의 부인병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

춘곤증을 달래주는 '달래'

모 방송에 출연한 한의사는 봄만 되면 몸이 무겁고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달래를 추천했다. 알리신 성분이 빈혈, 심혈관질환에 좋고 살균작용도 한다.

100세 장수식품 '냉이'

'백세강(百歲羹)'이란 별명의 냉이는 지방간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진한 향이 된장과 잘 어울린다.

다이어트에 좋은 '두릅'

저칼로리에 영양가가 높다. 씹새로운 맛은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의 영향으로 암 예방과 혈당 조절, 면역 강화에 좋다. 

밈쫌 짹!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말

신뢰 뽐뽐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싶을 때



별을 쏘다 vol.3, 28p

행복을 위한 남다른 생각 손욱 회장

손욱 회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착안해 독서·토론으로 소통의 문화를 만들고,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칭찬하면 신바람 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1주일에 한 번은 착한 일을 하고, 한 달에 2권의 좋은 책을 읽고, 하루에 5개의 감사 일기를 쓰는 행복나눔125운동을 실천해보자.



별을 쏘다 vol.6, 22p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김종대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힘으로 사는 자력(自力), 바르게 사는 정의(正義), 정성(精誠)스럽게 사는 정신, 사랑(愛)이 충만해서 사는 삶. 이 네 가지 가치가 이순신의 내면 회로를 이루는 가치입니다. 이순신의 소통,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너와 내가 이렇게 만나서 소중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강남에서 뽐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고 싶을 때



별을 쏘다 vol.8, 34p

가족을 발견하세요 최광현 교수

“스트레스와 위기로 받은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아뒀다가 자신에게 가장 만만하고 복수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에게 투기하죠. ‘상처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공감하며,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이해와 용서, 화해와 사랑의 나래를 펼 수 있게 됩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하루, 차곡차곡 쌓인 고민들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럴 때면 누군가 먼저 찾아낸 답이 큰 위로가 되어주기도 한다.
 지난 4년 동안 <별을 쏘다>의 지면을 채웠던 인터뷰이들의 이야기 중에서
 해답이 필요한 순간 다시 되새기고 싶은 말들을 모았다.

숨겨왔던 나의~ 창작 욕구를 펼치고 싶을 때

별을 쏘다 vol.7, 36p

통증없이 피어나는 풍경을 보다 정철교 화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던 것도 달리 보일 때가 있어요. 일상의 흔한 눈길과 전혀 다른 눈길로 보면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을, 그리고 못 봤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깃거리가 없는 공간은 없고, 사연 없는 물건도 없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통해 그것을 담아낼 뿐이죠.”



탈탈 털린 유리멘탈에 안식을 주고 싶을 때

별을 쏘다 vol.12, 36p

클래식 음악+채식=건강 콜라보레이션 김민석 박사

“병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클래식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두통의 증상을 완화하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장내세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운동, 8시간의 수면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별을 쏘다 vol.14, 38p

시를 쓴다는 건 내 영혼을 깨우는 일 남경희 시인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각박한 세상이에요. 저와 동료들은 문학과 동떨어진 삶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회의 어둠과 아픔이 문학으로 치유된다고 믿거든요. 시를 읽는 저녁,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성우의 과거를 끌어온 손

성우의 오늘을 굳건히 세우는 손

성우의 미래를 밝게 여는 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우인의 손이

성우하이텍의 미래입니다.



강릉, 커피에 취하고 단풍에 반하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차다 싶을 때는 어
김없이 바닷가 근처에서 뜨겁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리워진다. 강릉 커피의 메
카로 통하는 카페 ‘보헤미안’과 ‘테라로사’

는 강릉에 커피농장이 있다는 오해
를 불러일으킬 만큼 커피에
있어 유서 깊은 고장으로
만든 역할을 했다.



별을 쏘다 vol.2, 4~9p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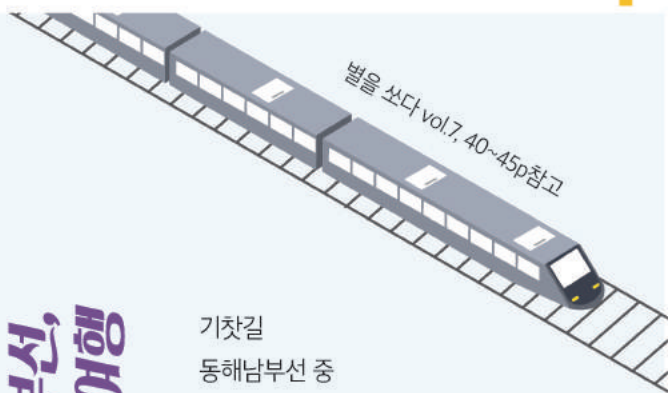
화순적벽에 묻혀 시인이 되다

별을 쏘다 vol.5, 30~35p 참고

화순적벽은 출입이 제한된

지 30년만에 개방된 만큼(2014년 10월 개방)

자연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새파란 하늘과 그 아래 웅장히 솟아 있는 붉고
푸른 적벽, 거울 삼아 적벽을 한 번 더 담아내는 적벽 강,
사계절을 뚜렷이 보여주는 울창한 숲. 눈앞에 대자연이
만들어 낸 적벽의 절경. 적벽을 종이 삼고
강물을 먹 삼아야 할 만큼 적벽과 마주한
사람은 모두 시인이 된다.



동해남부선, 기차여행 이치를 여는 길

기차길
동해남부선 중
해운대역과 송정역을 잇
는 구간이 2014년 12월에 이설
후 청사포 인근의 바다 절경을 즐기며 철
길을 걸을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되었
다. 철길은 역할을 다 했지만 여전히 삶
의 현장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자그마한
텃밭과 벽화의 아기자기함이 주민들에
대한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 기차여행은
혼자도 좋고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더 좋
다. 많은 대화를 주고받을 파트너가 있다
면 옛길 코스는 나와 그를 너나들
이로 이어준다.

별을 쏘다 vol.12,
42~47p 참고



어린이왕자가 살고 있는 뽀띠프랑스

한국 안의 작은 프랑스 마을. 프랑스 남부의
전원마을을 재현하여 마치 영화 <미녀와 야수>의
동화 같은 프랑스 마을이 연상된다.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아코디언 소리는 마음을 설레게 한다.

꼬마 섬나라 나미나라공화국

나미나라공화국은 춘천의 남이섬에 세워진
상상공화국이다. 찾아오는 전 세계의 여행자
모두가 이 나라의 국민이 된다. 청평호수 위
가랑잎처럼 떠 있는 남이섬의 봄은
따스한 낭만이 흐른다.

이색 카페 낭만 투어

부산 수영의 '테라루사'

고려제강 공장을 재생 건축한 복합문화공간 'F1963' 안에 자리하고 있다. 명성에 걸맞게 잘 로스팅 된 원두의 풍미가 일품이다.

범어사 인근의 '더 팜 4기'

갤러리 카페라는 콘셉트대로 사진작가가 촬영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양산 물금의 '구름에 반하다'

하늘이 보이는 천장 유리가 포인트다. 맑은 날이면 뭉게구름이, 흐린 날이면 심술구름이 머리 위로 흐른다.



밀면아, 반갑데이!



부산 밀면의 시작 내호냉면

1919년 함흥 내호리의 동춘면옥에서 시작된 내호냉면은 허영만의 만화 『식객』에도 소개되며 여행객들이 꼭 들르는 맛집이 되었다.

약을 달이는 정성 대성밀냉면

한우 사골에는 매실액, 백련초, 삼채뿌리 등이 들어갔다. '열무비빔밀면'은 이 집만의 계절 별미.

맛에 감각을 더하다 용호부대밀면

밀면을 주문하면 만두 1개가 세트메뉴처럼 제공된다. 약콩 넣은 면, 닭고기 고명이 특별하다.



별을 쏘다 vol.12, 54~55p 참고

부산하문 떡볶이 라멘

정오의 떡볶이: 이가네 떡볶이

매콤하면서 달달한 맛이 질리지 않는다. 특별 메뉴는 적당한 사이즈의 핫도그.

애프터눈 떡볶이: 다리집

잘갠 쌀떡이 달달한 소스를 가득 머금었다. 오징어튀김과 오뎅튀김도 강추.

모시의 떡볶이: 상국이네 김밥

24시간 영업. 주 메뉴인 김밥과 떡볶이를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된다. 당면 듬뿍 유부주머니도 꼭 먹어보자.

이색적이고 건강한 빵을



찾아가다

건강한 빵 브레드나인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유기농 재료만을 쓴다. 이스트 대신 직접 배양하는 '천연발효종'으로 반죽한다. 통밀빵과 호밀빵 등에는 우유도 쓰지 않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경주의 핫플레이스 기와양과점



전통 한옥 외관과 특화된 크루아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경주의 핫플레이스. 바삭함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기막힌 크루아상은 워낙 찾는 사람이 많아서 1인당 2개 한정으로 판매한다.

이가네 떡볶이

영업시간 | 11:00~20:00,
일요일 휴무
부산 중구 부평1길 40
T. 051-245-0413



테라로사

영업시간 | 9:00~21:00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T. 051-756-1963



다리집

영업시간 | 12:00~21:00,
화요일 휴무
부산 수영구 수영로 464번길 7
T. 051-625-0130



더 팜 471

영업시간 | 11:00~22:00
부산 금정구 하마2길 28-17
T. 051-518-3355



상국이네 김밥

영업시간 | 24시간,
둘째·넷째 수요일 휴무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41번길 40-1
T. 051-742-9001



구름에 반하다

영업시간 | 14:00~23:00,
둘째·넷째 화요일 휴무
양산 물금읍 오봉3길 70
T. 055-910-9996



브레드나인(Bread 9)

영업시간 | 11:00 - 22:00, 일요일 휴무
울산 남구 중앙로 8 T. 052-227-9910



내호냉면

영업시간 | 10:00~21:00
부산 남구 우암번영로 26번길 17
T. 051-646-6195



용호부대밀면

영업시간 | 11:00 - 20:00,
월요일 휴무
부산 남구 용호로 97번길 6
T. 051-611-1231



기와양과점

영업시간 | 12:00~모든 빵 소진시, 주말 휴무
경주 금성로 182번길 17-4 T. 070-7377-9147



대성밀냉면

영업시간 | 10:30 - 20:00
부산 중구 보수대로 44번길 6
T. 051-244-9658



화순적벽 버스투어

화순군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화순적벽 셔틀버스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화순적벽 중 경관이 수려한 보산적벽, 노루목적벽 등을 관람하는 코스이다.

- '적벽투어' 예약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예약 가능
(<http://tour.hwasun.go.kr/cmd>)
- **운영기간** 2018년 3월 24일~11월 25일 매주 수, 토, 일
- **운영시간** 2회(09:00, 13:30)
- **소요시간** 약 3시간 40분
- **요금** 10,000원
- **코스**



농치면 아쉬운 강릉의 가을

오대산 소금강

무릉계-십자소-식당암-구룡폭포를 잇는 코스(약 2.5km)를 추천한다. 부지런히 걷는다면 왕복 약 2시간이면 충분하다.

대관령

바우길 1코스인 선자령 풍차길이나 바우길 2코스인 대관령 옛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대관령 자락의 '커피커퍼'에서 운영하는 커피 박물관에도 둘러보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26년산 커피나무를 보며, 로스팅에서 분쇄, 추출까지 커피를 만드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오죽헌과 경포대

오죽헌 진입로를 노랑게 메우는 은행나무, 경포대와 경포호 둘레를 붉게 물들이는 단풍, 은행나무가 수호신처럼 자리하고 있는 강릉향교, 외지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주문진 해변 인근 호수 '향호'의 갈대 군락도 코스에 넣어보자.

2박 3일 여행 추천 코스

Day 1 09:00 부산 출발
15:00 남이섬
19:00 식사 - 추천메뉴: 남촌막국수(033-253-6003)
20:00 숙소

Day 2 10:00 김유정역 레일바이크
12:00 식사(앤디스커피앤버거(070-8289-1339) 추천)
13:30 삐띠프랑스
17:30 식사(종가닭갈비막국수(031-585-0877) 추천)
19:00 숙소(삐띠프랑스 추천)

Day 3 09:00 아침(삐띠프랑스 내에서 가벼운 분식)
12:00 로봇체험관 & 애니메이션박물관
or 아침고요수목원 혹은 제이드가든
14:30 부산으로 출발

당일 여행 추천 코스

일광역→일광해수욕장→기장죽성리왜성과 해송→죽성드림성당→대변항→기장역→오시리아역→국립부산과학관→벡스코역→수영사적공원

1박 2일 여행 추천 코스

일광역→일광해수욕장→기장죽성리왜성과 해송→죽성드림성당→대변항→기장역→오시리아역→국립부산과학관→(숙박)→송도해상케이블카→현여울문화마을→국립해양박물관→부산삼진어목(부산어목체험·역사관)→벡스코역→수영사적공원→황령산

주변 볼거리

부산시민공원, 영화의전당, 국립해양박물관, 송도해안산책로, 동해남부선 옛길, 청사포다릿돌전망대, 송정해수욕장, 해동용궁사, 칠암항 야구등대

Editor's Pick!

〈별을 쏘다〉 추천 알파배기 맛집,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2014년 여름호를 시작으로 벌써 4년째 성우인과 만나고 있는 <별을 쏘다>.

창간 4주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별을 쏘다> 기사 중 성우인들이 특히 흥미 있게 읽는 것이 맛집&여행지 기사인데요,

그동안 지면을 통해 소개했던 다양한 맛집과 여행지 중

성우인들이 꼭 찾아가보았으면 하는 알파배기만 골라 추천합니다.

Pick me pick me pick me up~

에디터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별을 쏘다> 맛집, 여행지 만나볼까요? 🌈





국내

(주)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타,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주)아산성우하이텍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칭법인, 인도SHI, 인도SS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독일WMU B, 멕시코법인, 미국사무소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손잡은 당신이

성우하이텍입니다.

